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2호 【루계 제24575호】 주체103(2014)년 6월 11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서해의 승전포성에 화답하여 증산돌격 앞으로!

조국의 서해 몽금포중심어장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인민군대의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5월 26일까지 지난 시기 한해생산량의 근 5배에 달하는 건뎅이잡이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올해목표를 두달 남짓한 사이에 2.4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수산성아래 서해지구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들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류례없는 어로전투에 총궐기하여 지난 5월말까지 지난해실적의 3배가 넘는 건뎅이를 잡는 최근년간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올해 봄철수산물생산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한 서해지구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조선속도창조열풍으로 들끓고있는 시기에 서해의 물고기잡이전투장에서 련이어 높이 울린 승전포성은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증산돌격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령도는 서해의 물고기잡이전투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안아온 근본원천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꽃피워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쳐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과 정력적인 령도로 인민군대 수산부업발전에서부터 획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시였다.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고있던 때에 전투함선이 아니라 군인생활을 위한 현대적인 《단풍》호고기배들을 마련해주시고 친히 물고기잡이목표까지 정해주신분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난해 12월 물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포탄상자마냥 그득히 쌓인 물고기를 보시며 그토록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지난해말 건군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사회의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잡이조건은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와 사회의 수산사업소가 다를바 없지만 물고기잡이실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사회의 수산부문 일군들의 패배주의적관점에 경종을 울리시였다.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동해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주시고 그 위대한 모범으로 전국의 수산부문에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서해어장에서 두달 남짓한 사이에 지난해실적의 몇배에 달하는 흐뭇한 수산물생산성과가 마련될수 있었다.

서해의 승전포성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당의 명령지시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이룩한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당이 아직은 어려운것이 많은 오늘의 조건에서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투쟁을 열렬히 호소한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때문이다.

수산부문이라고 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조건과 환경이 더 좋아진것은 없다. 다른것이 있다면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당앞에 결의한 봄철수산물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충정의 각오를 만장약한것뿐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하루빨리 승리의 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련일 풍어기를 올린 인민군대의 서해지구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산모범이 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분출시켰다.

서해각지에서 몽금포중심어장으로 달려온 어로공들은 바다를 당중앙결사옹위의 격전장으로 여기였다.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지만 물고기잡이의 하루하루를 조국수호의 분과 초로 여긴 그들은 하루계획을 부단히 높이 세우며 날바다에서의 격전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해상경보가 있은 불리한 날에도 어장을 비울수 없다고 하며 용약 더 먼바다로 진출하여 만선의 풍어기를 올린 선장도 있었다. 풍랑으로 그물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멎는 순간 주저없이 새벽의 찬 바다속에 뛰여든 기관장도 있었다. 전마선보다 별로 크지 않은 고기배를 가지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다양한 어로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4 000여t의 수산물생산기록을 세운 수산협동조합 어로공들의 마음속에 맥박친것은 오직 자랑찬 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신념과 의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꽃피울 충정의 각오를 안고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증산돌격전의 빛나는 승리는 온 나라에 희열과 락관을 더해주고있으며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 비약의 더 큰 나래를 달아주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서해의 승전포성에 화답하여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증산돌격전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현실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의 하루하루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분야에서도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는 창조와 변혁의 나날들로 수놓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어주신 건설의 최전성기속에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 건설의 번영기가 펼쳐진 올해에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지난해와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이룩된 련이은 승전포성은 수산업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조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경제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도 있고 최후승리의 그날도 앞당겨진다는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충정의 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기풍에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서해의 몽금포어장에서 높이 울린 승전포성은 수산부문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봄철물고기잡이전투기간 상을 비롯한 수십명의 수산성 일군들이 날바다를 헤가르는 고기배들에 배낭을 풀어놓았다. 각 도수산관리국 일군들,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의 일군 수백명도 직접 배를 타고 어로공들과 전투를 벌리였다. 수시로 달라지는 어황조건에 따르는 대책적문제들을 파도를 헤가르는 배우에서 전투적으로 풀어나갔다. 연유와 그물 등 중요자재들도 성책임일군들이 탄지휘선의 지령에 따라 해당 수역의 선단, 고기배들에 전진공급되였다.

일군들은 수산부문 일군들처럼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자랑찬 생산실적을 직접 안아오는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아래단위에 지시나 되받아 내려보내고 조건타발이나 하며 말로만 결사관철을 외우면서 앉아 뭉개는 구태의연한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당정책의 운명을 걸머진 책임일군들이 구호나 부르며 자리지킴이나 한다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하나의 전선, 하나의 초소를 내여주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에 몸을 잠그고 일단 포치한 사업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천리마대고조시기와 1970년대의 일군들처럼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며 현실속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할 방도를 찾고 자체의 힘으로 틟고나가야 한다. 열백마디의 말보다 이 신작칙의 산모범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지휘관, 단위의 걸린 문제를 자기 집일처럼 여기고 앞장에서 풀어나가는 돌격투사가 되여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서해어장에서 최근시기에 있어보지 못한 비약적성과를 달성한 비결의 하나는 각 도수산관리국들사이,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들사이 그리고 고기배들사이의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열의였다. 매일매일의 실적이 붉은 줄이 되여 경쟁도표판에 오르고 그것은 각 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분발시키는 도화선으로 되였다.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는 집단적경쟁열풍속에 어구들도 더 보강되고 앞선 작업방법이 광범히 도입되였으며 그것이 곧 비약적인 수산물생산성과로 이어졌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집단적혁신의 거세찬 불길로 오늘의 조선속도창조투쟁에 힘찬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 단계별로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경쟁참가대상과 지표들을 바로 정하고 총적인 목표와 단계별과업을 정확히 제시하여 해당 단위와 근로자들이 높은 경쟁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경쟁을 조직진행함에 있어서 우결함들을 제때에 알려주고 총화평가사업도 의의있게 진행하여 한개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을 빠른 속도로 파급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에 참가한 생산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쟁도표의 붉은 줄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발휘되는 자신들의 애국충정의 높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자기가 지켜선 일터와 초소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전투좌지로 여기고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경제부문의 당조직들에서 사상전의 드센 포성으로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증산돌격전의 선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올해도 벌써 다섯달이 지나갔다. 당조직들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신년사과업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당앞에 결의다진 목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나가도록 일터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1월8일수산사업소를 두달 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처럼, 착공한지 석달도 못되여 모든 골조공사를 결속한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자들처럼, 서해의 승전포성을 안아온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처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증산돌격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부강조국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대홍단일대 답사, 홍암농장 제대군인들과 상봉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대홍단일대를 답사하였다.

8일 삼지연을 출발한 답사행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길이 전하는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을 개시하였다.

비바람을 틟고 백두산갈림길에 이른 답사행군대원들은 주체88(1999)년 2월 눈보라행군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적을 전하는 헌시비앞에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떡없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의 철의 의지와 비범한 령도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이날 저녁에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청신한 공기를 한껏 마시며 야전식사를 하고 숙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던 투사들의 열렬한 조국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의 메아리인양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이 부르는 시와 노래, 풀피리소리가 백두밀림의 밤하늘가에 울려퍼졌다.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이 차넘치는 행군로상에서 그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문답식학습을 하였으며 삼지연군 무봉고급중학교에 원민의 정이 담긴 학용품과 체육기재 등을 넘겨주었다.

행군길을 혁명전통학습의 뜻깊은 계기로 아로새기며 그들은 9일 대홍단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행군대원들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으며 총대탑, 대형부주제부각군상 등을 돌아보았다.

무산지구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20대 청년장군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는 그들의 가슴마다는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더욱 억세게 벼린 백두산총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맹세로 끓어번지였다.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조국애에 대하여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준엄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고 우리 인민에게 영원무궁한 행복의 요람을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세 대홍단》, 《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 등의 노래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끝까지 받들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김정은빨찌산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이날 답사행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정치사업을 진행하신 귀틀집이 자리잡고있는 신사동혁명전적지를 참관하였다.

항일선렬들의 애국의 숨결과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백두의 전구들을 답사하면서 그들은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며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운 투사들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10일 답사행군대원들은 대홍단군 홍암농장에 파견된 제대군인들과 상봉하였다.

백두대지에 혁명적군인정신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안아오고있는 제대군인들과 안해들, 농업근로자들과 전투적인사를 나누었다.

제대군인들과 안해들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성원들을 맞이했던 그날처럼 대홍단에 찾아온 군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제대군인들과 안해들이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는데 대한 이야기는 행군대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행군대원들과 제대군인들의 안해들은 《불타는 소원》, 《충성의 대답소리 〈알았습니다〉》의 노래를 부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심장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이날 행군대원들은 대홍단의 제대군인들과 함께 체육경기도 진행하고 화선식사도 함께 하였으며 감자농사로 들끓는 농장벌에 달려나가 정치사업을 하면서 그들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자양분으로 받아안으며 군인들은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국청소년들의

결의모임 진행

무산지구전투승리 7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전국청소년들의 결의모임이 10일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선창에 화답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 제일결사대, 총폭탄이 되겠다.

혁명적사상공세의 열풍속에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철저히 준비하며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겠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겠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단호히 쳐갈기는 투철한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겠다.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조직의 전투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겠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갈 참가자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부각상,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모습 그리고 고산지대 개척자들의 투쟁과 오늘의 대홍단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모습을 형상한 대형부주제부각군상, 총대탑, 혁명사적비를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최근년간 떼몰이에서 최고기록 돌파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

121호림업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난 5월말까지 상반년 떼몰이계획을 123.5%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최근년간 같은 시기에 비해 떼몰이에서 최고실적을 기록한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떼를 내리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방송선전차를 타고 들끓는 떼무이터들에 나가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리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자서림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이 떼몰이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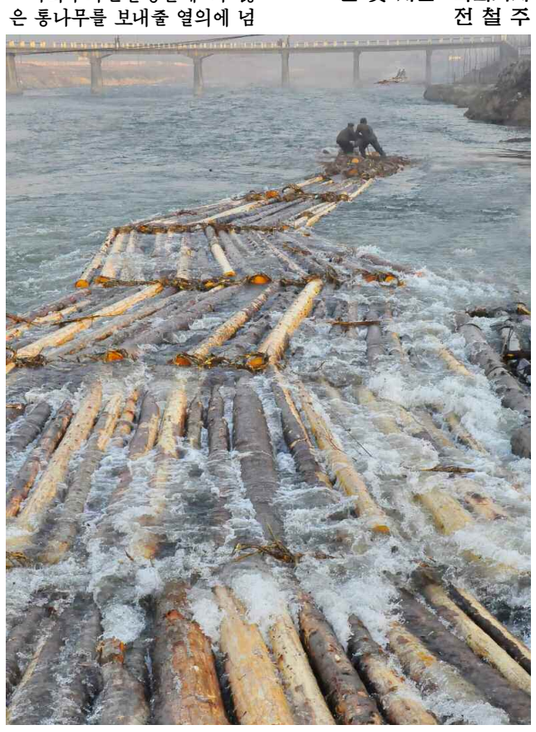
룡하림산사업소에서는 장진강에서 내려오는 떼를 빨리 되받아넘기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는 동시에 떼무이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더 많은 떼를 내리고있다.

부전림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떼무이를 적극 다그쳐 매일 떼몰이실적을 올리고있다.

압록강류벌사업소에서는 지난 5월에 물량이 급격히 불어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림산사업소들에서 내려온 작은 떼들을 합쳐 큰 떼를 뭇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열의에 넘쳐있는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각 도에 새로 건설된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성과 확대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각 도마다에 일떠선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종균생산을 비롯한 모든 생산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공장들에서 생산성과가 확대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 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몸소 표준설계도 보아주시고 버섯공장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능력이 큰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을 최단기간내에 일떠세웠다. 뿐만아니라 공장건설이 끝나는 즉시 버섯생산에 착수할수 있게 기질확보를 비롯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

각 도버섯공장들마다에는 면적이 근 4천㎡ 되는 기본생산건물과 여러동의 궁륭식박막온실들이 있다. 공장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무균화공정과 종합조종실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을뿐아니라 전력보장대책도 세워져있어 버섯재배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 각 도버섯공장들의 기본생산건물들에서는 흰곤봉버섯재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그 폐기질을 리용하는 궁륭식박막온실들에서는 느타리버섯과 비늘먹물버섯, 털검정버섯 등이 재배되고있다.

각 도버섯공장들에서는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종균배양성공률을 높이기 위한데 힘을 넣고있다. 또한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로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주고있다.

원산버섯공장에서는 원산농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바다물과 바다물농축액, 강원도에 흔한 금강약돌 등을 버섯재배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또한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고 팽나무버섯생산기지건설을 다그치는 등 여러가지 버섯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남포시의 버섯공장들에서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버섯생산설비들이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해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고있으며 매일 많은 량의 흰곤봉버섯을 수확하고있다.

평안북도, 라선시, 함경북도, 황해북도의 버섯공장들에서도 흰곤봉버섯생산을 계단식으로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한 종균과 기질생산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각 도의 버섯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버섯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감으로써 당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군민협동작전은 선군조선의 위력한 투쟁방식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도가니속에서 끊임없이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당백공격정신, 단결의 기상이 맥박치고있다.

군민협동작전은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일심동체를 이룬 선군조선의 강위력한 투쟁방식이다.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단숨에 강행돌파하고 전체 인민이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여기에 군민협동작전의 거대한 생활력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군민협동작전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며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1

항일의 불길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은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개척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왔다. 피어린 선군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시는 승리의 작전도에는 군민의 긴밀하고 강력한 전투서렬이 편성되여있었다. 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전호에서 피와 살을 나누며 어깨겯고 싸웠다. 그 나날에 원쑤들을 전률시킨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결사항전의 정신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동지적단합과 전투적뉴대를 떠나서 조선혁명의 개척과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가장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전개된 군민협동작전은 우리 혁명의 매 단계마다에서 커다란 생명력을 발휘하였다. 1950년대의 조국방위정신과 천리마의 전설, 속도전의 기적,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을 창조하여온 장구한 로정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천만군민의 피와 땀이 뜨겁게 스며있다. 이 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장 공고한 혼연일체를 이루게 되였으며 군민협동작전은 선군조선의 고유한 투쟁방식으로, 백승의 보검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을 승리에로 떠밀어온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는 시대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이 뚜렷이 새겨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작전적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질풍같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군민협동작전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서로 협조하고 보조를 맞추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최상의 성과와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투쟁방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위력한 투쟁방식입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다. 수령, 당, 군대, 인민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에서 군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혁명의 2대력량이다.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기풍, 행동의 일치를 실현하며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는 길에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의 목적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단숨에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는데 있다.

우리의 투쟁에서는 작전도의 점 하나, 부호 하나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지향되며 군대와 인민의 공격방향도 당정책결사관철의 진군로로 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서 벌어지는 군민의 투쟁,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작전, 동해와 서해에서 진행되는 군대의 《단풍》호들과 사회의 어로선단들의 경쟁적인 물고기잡이전투 등은 군민협동작전의 목적과 사명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고조격전장들에서 당이 가리키는 붉은 화살표방향을 따라 힘있게 전개되는 군민협동작전에 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이 빛나게 관철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이다.

군민협동작전은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에서만 전개되고 승리를 떨칠수 있는 투쟁방식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민협동작전구상에는 군대와 인민이 점령하여야 할 전투목표와 방향이 뚜렷이 명시되여있고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치밀한 전술방안이 제시되여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전개되는 군민협동작전이 철두철미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것으로 일관되도록 하시고 애국의 숭고한 모범으로 천만군민을 이끌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군민협동작전은 령도자와 군민이 사상과 뜻, 열과 정을 같이하는 동지, 전우로 굳게 뭉쳐있는 우리 조국의 고유한 공격작전으로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흉내낼수도 없다. 비범한 작전적예지와 특출한 조직지휘력,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닌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백전백승으로 빛나는 군민협동작전의 력사와 전통은 위대한 혁명정신의 계승과 혁명의 주력군의 선도적역할, 전 전선에서의 대비약적혁신에 의하여 꿋꿋이 이어지게 된다.

오늘의 군민협동작전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투쟁과 전진의 강력한 정신적원천으로 하고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정신력의 뿌리이고 근본바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선이다.

오늘도 량강도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하였던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지양개등판의 승리의 경축대회와 같이 펼쳐진 군민련환모임에서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진행한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은 인민들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유격근거지에서처럼 군대와 인민이 서로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대홍단삼천리벌에서 군민이 어깨를 겯고 대지를 가꾼 그 나날에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끓어넘친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이였다. 승리의 《노래폭탄》으로 항일의 옛 전구를 들었다놓았던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군민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천백배로 심어준 사상전의 힘찬 포성이였다. 오늘도 인민군군인들의 백두산지구에로의 답사행군은 계속되고있으며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마음은 백두산으로 달리고있다.

백두산에 시원을 두고있는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은 백두의 혁명정신의 철저한 구현이다.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기 힘으로 기어이 나라를 찾고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겠다는 자주의 정신,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이런 정신력을 떠나서 군민협동작전의 정신적원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의 사령부 목숨으로 지키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에 새겨져있는 구호나무의 글발들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이 어떤 정신력으로 굳게 뭉쳐 조국해방작전에서 승리떨쳤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천만군민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더불어 신념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우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진군 또 진군할 때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군민협동작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혁명지론이다.

오늘의 군민협동작전은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선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에 의하여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어떤 작전에서든지 공격전의 선두에는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주력부대가 있어야 한다. 그 대오가 어떤 정신과 기풍으로 싸우는가 하는것은 작전전반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에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는 기본력량은 인민군대이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군인건설자들이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어떤 정신과 일본새로 받들어나가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고귀한 결정체이다.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 이것이 군민협동작전의 승리를 위한 혁명적기상이다. 우리 인민들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에서 선군시대 혁명가의 투쟁기풍을 본받고있다.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이야말로 모든 사업이 군대식, 화선식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군민협동작전과정은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오늘 군민협동작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은 사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선군혁명투사로 키우는 전투장으로 되고있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건설착공후 불과 1년동안에 수만정보의 등판을 개간하고 자연풀판정리와 수천정보의 인공풀판을 조성한것을 비롯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군민협동작전이 벌어지는 격전장에서 단련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비판과 패배의 한숨소리가 아니라 락관과 희열에 넘친 웃음소리가 차넘치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만이 높이 발휘되는 법이다. 현실은 군민협동작전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인민군대와 같은 불굴의 혁명정신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강의한 기질을 지닌 혁명가로 준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의 군민협동작전은 대고조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모든 전역에서 널리 보편화되고있다.

하나의 투쟁방식이 시대를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자면 전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으로 되여야 한다. 일부 단위나 몇몇 개소에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차넘치는 흐름으로 전환될 때 명실공히 시대를 대표하는 투쟁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은 력량상규모에서나 범위에서나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폭을 가지고있다. 이런 작전전투행정에서 군대와 인민이 호흡을 맞추며 정면돌파와 익측공격, 력량협동과 화력협동으로 완강히 돌진할 때 그 어떤 방대한 과업도 단숨에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로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은 지난해의 투쟁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의 높은 정신적앙양과 끊임없는 대비약적혁신을 안아오는 바로 여기에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있다.

오늘 군민협동작전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국가적대상건설은 말할것도 없고 대자연개조사업과 도시와 농촌건설을 비롯하여 도, 시, 군을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군민협동작전으로 벌어지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해당 주둔지역의 인민들이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시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산림조성과 잔디심기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이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면 산악같이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축산과 과수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구상을 펼치면 희한한 돼지공장과 과일생산기지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군민협동작전의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군민이 단합하여 기적을 창조하는 투쟁방식은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속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고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새로운 기적을 안아오는 시대어로 빛을 뿌리고있다. 인민군대가 어렵고 힘든 곳에서 돌파구를 열면 인민들이 그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맡은 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이 투쟁방식은 언제나 성공하는 작전으로 되고있다.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으로 빛나고 천만군민이 신심과 용기에 넘쳐 전개하는 군민협동작전이 있기에 선군조선은 위대한 번영과 문명으로 세계를 굽어보며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2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은 위대한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사상도 투쟁기풍도 하나가 된 천만군민의 동지적단결이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군민협동작전을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 담대한 기상과 배짱이 구현되고 선군조선을 비약의 한길로 이끄는 위력한 투쟁방식이 바로 군민협동작전이다.

군민협동작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백승의 보검이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불이 번쩍 나게 단숨에 해제끼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 희천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끊임없는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왔다. 장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민의 몸에 푹 배고 굳어진 이러한 전통과 기풍을 적극 살려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한다는데 군민협동작전의 생명력이 있다.

군사작전에서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전술적의도에 따라 방어도 있고 후퇴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군민협동작전에서는 한걸음의 침체나 답보도 있을수 없다. 여기서는 오직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정신으로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는 불굴의 공격속도만이 요구될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이후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비상한 속도로 조선동해포구에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걸작을 마련한 인민군군인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고있다. 만풍년의 향기, 사회주의바다향기, 건설의 대번영기, 과학기술진군의 힘찬 발걸음으로 세계를 압도하기 위한 총돌격속도, 조선속도창조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이다.

지금은 희천속도, 《마식령속도》와 같이 그 어떤 대상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세계공용어가 될수 있는 조선속도가 나와야 할 때이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런 거창한 대진군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완벽하게 실현하며 군민협동작전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세계적수준을 릉가하는 건축물건설과 최첨단돌파전 등 대고조전투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일반화하면서 군민의 협동작전이 활력있게 진행될 때 오늘의 총진군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게 될것이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선속도를 창조하자, 이것이 현시대의 요구이다.

군민협동작전은 사회의 전반적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사람들의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위력한 전투행동방식이다.

오늘 군민협동작전이 벌어지는 곳은 전투장의 공기부터가 확실히 다르다. 인민군군인들의 군가합창과 힘찬 방송선전, 사회의 기동예술선동대활동으로 건설장이 떠나갈듯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곳이 군민협동작전이 벌어지는 전투장이다.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사상사업이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어제와 오늘, 매 순간순간이 다르게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군대의 기백에 넘친 사상정신적풍모가 사회에 공기처럼 흘러들게 하고 온 나라에 끊임없는 활력을 부어주는 군민협동작전은 우리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위력한 투쟁방식이다.

동면하던 사람들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조건타발을 앞세우며 현실을 외면하던 책상주의자도, 말공부쟁이들도 비약과 혁신의 불도가니속에 뛰여들게 하는것이 군민협동작전이다. 인민군대와 함께 투쟁하는 격전장에서는 작전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패배주의가 추호도 허용될수 없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결패있게 조직하고 맵시있게 마무리하는 인민군대 지휘관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오분열도식일본새를 털어버리고 당이 준 과업을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는 지휘성원으로 준비하게 된다. 오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결사전을 벌리는 근위부대, 영웅부대, 건설교육자부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온 사회에 전투적이고 진취적이며 혁명적인 일본새가 차넘치게 하는 군민협동작전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그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는 본때있는 작전이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대가정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군대와 인민의 심장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군대와 인민이 혈육의 정으로 결합되여 사회주의대가정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것, 이것이 우리의 투쟁원칙이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민일치를 초석으로 하고있으며 그 수행과정은 곧 군민대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 작전을 벌리는 과정에 군대와 인민사이에 오가는 정은 더더욱 두터워지게 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진행되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은 군민일치의 미풍,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는 전투장으로 되고있다. 공사의 첫시작부터 불이 번쩍 나게 일판을 벌리는 과정에 군민의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전투적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며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작전, 당을 받드는 길에서 사상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가 되여나가게 한다는데 군민협동작전의 커다란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군대와 인민이 서로 위해주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는 고상한 륜리가 더욱 굳게 형성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되고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도맡아해제끼고있으며 인민들은 인민군군인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며 그들의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없이 이어지는 원군원민의 미담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대가정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있는 군민대단결은 그 무엇에도 비할데 없는 귀중한 재보로 된다. 군대와 인민이 투쟁과 생활에서 감정정서적으로 호흡과 리듬을 잘 맞추어나가는 속에 군민의 사랑과 정이 합쳐져 대승리를 안아오는것이 바로 우리의 군민협동작전이다.

*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건설의 대번영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 지휘관들과 사회의 지도일군들은 군민협동작전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군민의 정신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자기 단위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군민협동작전을 보다 힘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데 군민협동작전의 총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강성번영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는 군민협동작전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구상하시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나가기 위한 작전으로 힘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당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작전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작전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들은 일단 전술적방안이 세워지면 화력을 총집중하여 제때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 명령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며 앞서나가는 인민군대에 비하여 뒤떨어져 앉아뭉개는 현상이 나타나면 군민협동작전에서 승리를 거둘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불변의 신념을 안고 한치도 에돌거나 순간도 주저함이 없이 오직 승리의 직선주로를 따라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천만군민이 당의 사상과 숨결로 숨쉬고 당과 뜻도 지향도 함께 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게 하여야 한다.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작전의 승리를 위한 조직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작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군민협동작전의 승리도 전투전에 마련된다.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사회의 일군들이 작전전술토의를 실속있게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여 제기된 대상을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한 조직지휘를 잘하여야 작전의 성공이 담보된다.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차지해야 할 위치는 대오의 맨 앞장이다. 지휘성원들은 언제나 공격기발을 자기들이 들고나가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대오의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일단 세워진 작전방안은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날 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마음과 마음을 합쳐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지휘성원들은 언제나 작전전반을 살피고 어느 한 공정이라도 처지는 일이 없이 립체전, 전격전으로 작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군민협동작전과정이 곧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무책임성과 같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을 사상의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다. 군민협동작전에서도 최대로 중시되여야 할것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이다. 우리는 군민협동작전을 순수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대중의 앙양된 열의로 승리하는 사상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장령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최고사령관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오직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도록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화선식으로 벌려나가는 인민군대의 현장정치사업은 사상전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군민협동작전의 목적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을 위한데 두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작전에 진입하기전에 작전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깊이 알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과 미담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작전의 전 과정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미풍으로 엮어지게 하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여 당정책이 매 사람들에게 제때에 가닿게 하며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고 있는 마력을 다 내도록 하여야 한다.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작전전역이 혁신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도록 하여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번영을 담보하는 영원한 투쟁의 기치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시대의 위력한 투쟁방식인 군민협동작전을 활발히 벌려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나가자.

김 일 룡, 박 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뽀르뚜갈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리스봉

뽀르뚜갈공화국 대통령

아니발 까바꾸 씰바각하

나는 뽀르뚜갈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6월 10일 평 양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담겨진 사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는 참관자들
—주체사상로작전시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회고록학습을 실속있게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밑에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회고록학습을 잘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특히 일군들부터가 회고록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갱들에 내려가 해설선전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연구발표모임, 병풍식직관물을 리용한 해설강의들을 뜻깊은 명절날들과 기념일들을 계기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는데 그 실효는 대단히 크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불타는 맹세를 다진 탄광안의 모든 당원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당면한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관리를 실속있게 짜고들자

옳은 관점과 주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단천제련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산계획작성에서 기술적요인을 정확히 타산하고 생산준비에서 기술준비를 확고히 앞세우며 기술관리를 잘하여 생산과정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되게 하여야 합니다.》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가고있는 오늘 일군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 기술관리수준과 역할에 따라 공장의 진보와 퇴보가 명백하게 갈라지고있다.

생산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가고있는 단천제련소 일군들의 기술관리경험에는 본받을만 한것이 있다.

기술준비의 과학화문제

제련소의 전반생산공정에 따르는 기술지표는 100여가지에 달한다. 또한 생산공정이 흐름식인것으로 하여 하나의 기술지표변화가 생산전반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예민한것만큼 일군들은 기술지표관리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일군들이 생산종합지령실과 사무실에서 기술지표들을 시간별로 장악하면서 그 변화에 따르는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가고있다.

어느날 배소로의 온도변화에 의해 기술지표들이 변경되였을 때에도 기사장을 비롯하여 기술과의 일군들과 직장의 현장기사, 고급기능공들이 모여 기술합의를 하고 표준조작법을 신속히 갱신하였다. 그리하여 전반생산공정에서 기술지표들의 파동이 없이 생산을 안전하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기술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고 기술관리일군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비상히 높다고 볼수 있는 실례의 하나이다.

기술준비에 큰 품을 넣고있는것은 제련소일군들의 기술지도내용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몇년전에 많은 품을 들여 꾸려놓은 중간시험공정만 놓고보아도 제련소일군들이 기술관리를 대하는 관점을 잘 알수 있다.

제련소의 중간시험공정건설은 조액공정의 현대화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시기에 시작되였다.

많은 로력과 자재소비를 요구하는 조액공정의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중간시험공정건설을 동시에 내민다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책임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하고 내밀었다. 이것은 기술진보의 활무대로 되였다.

제련소전반생산공정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중간시험공정이 일떠선 후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위한 기술준비에서 보다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였던것이다.

지금 제련소에는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다시 되돌이하여 유가금속을 모조리 회수하기 위한 여러 생산공정이 거창하게 일떠서고있는데 이를 위한 기술연구가 모두 중간시험공정에서 시험단계를 거쳐 완성되였다.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한 기술준비의 과학화, 바로 여기에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려는 일군들의 관점이 비껴있다.

증산의 예비

증산과제를 수행하자면 로력이나 자재 등을 더 받는것과 같은 보장조건문제가 상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제련소일군들의 증산관점은 이와 다르다.

이들은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는데서 증산의 예비를 찾고있다.

지난해 조업한 산화아연생산공정에서 기술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생산을 늘이고있는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산화아연직장에서는 매 공정을 지켜선 생산자들이 기술지표를 갱신하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있다. 산화아연생산공정을 처음 운영하는 조건이지만 생산자들은 누구라없이 기술의 주인이 되여 공정상 합리적인 기술지표를 찾고있다. 그 과정에 어느 지표를 어떻게 변경시키면 어떤 지표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묘리를 터득하고있으며 이것은 기술능숙제고로 이어지고있다.

생산자들속에서 기술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높아갈수록 일군들의 조직사업과 기술지도는 더욱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다.

제련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자들이 하나의 기술공정을 파악해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발전하는 시대의 높이에 따라설수 있도록 과학기술학습을 잘 짜고들고있다.

교대별로 학습을 진행한 다음 생산자들은 실지 실천속에서 여러가지 인자에 의한 기술지표의 변화를 제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십가지에 달하는 기술지표에 정통하고있다. 이 과정에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한계단 올라서 제품의 실수률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기술창안도 대담하게 내놓고있다.

힘을 넣은것만큼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지난해 조업한 때로부터 산화아연생산공정에서의 생산을 분석해보면 초기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났을뿐아니라 제품중 아연품위가 3~4% 더 높아졌다. 지난 시기 버리던 폐설물로 하루에 20여t의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실수률은 지난 시기에 비해 7%이상이나 높아졌으니 이것이 바로 증산이 아니겠는가. 산화아연생산공정에서만이 아니다.

최근년간에만도 제련소에서는 고산고온침출공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술공정들을 확립하고 기술지표들을 련이어 갱신하여 전기아연의 실수률을 훨씬 높이였으며 그 질적개선에서도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다. 기술관리를 대하는 이곳 일군들의 관점이 안아온 성과였다.

본사기자 리철옥

동림광산기계공장에서

기대되는 인재중시경영전략

지금 동림광산기계공장의 경영전략은 가까운 앞날에 채취기계설비개발에서 패권을 쥐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이를 위해 공장의 일군들은 인재선발과 체계적인 양성에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에 의하여 경제와 사회발전의 높이와 속도가 규제되고있는 현시기에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으로 되여야 합니다.》

실력전,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 인재력량이 없이는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시대의 흐름을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이 청년인재들을 원동력으로 하여 비약적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려고 하고있다.

우선 인재선발에 큰 품을 들이고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지배인은 여러 대학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해마다 인재선발에 품을 들이고있다.

공장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들속에서도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있다.

얼마전에는 공장대학을 졸업한 한 설계원이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에 입학하였다.

인재를 선발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기술발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하려는것이 이곳 일군들의 경영전략이다.

2년전에 공장에서는 25명의 대학졸업생들을 받아들이였는데 일군들은 이들을 전공과 기질적특성에 맞게 현장들에 배치한 다음 매 사람에게 기술과제를 명백히 주고 이끌어주는 사업을 책략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해당 부문에서 이룩한 기술적성과와 세계적발전추세 등을 제때에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리고있다. 일군들의 이러한 노력은 좋은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높은 강질을 요구하는 채취기계들을 손색없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복합개량제를 개발하고 구상화흑연주철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지배인이 직접 연구종자를 주고 필요한 조건을 아낌없이 마련해준 결과였다.

이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에서는 감속기치차, 전차의 차륜을 비롯하여 채취기계부분품들의 강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얼마전 공장에서 구상화흑연주철로 만든 감속기치차를 주물직장 혼사망에 맞추어 강질을 시험해본데 의하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한다.

기술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포부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기술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는것, 본것이 많아야 한다는것이 지배인 강신덕동무의 주장이다.

이런 축적과 바탕이 있어야 그 토대우에서 기발한 착상도, 가치있는 기술적창안도 많이 나올수 있으며 빠른 기간안에 채취기계설비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도 개발할수 있다는것이 공장책임일군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군들은 채취기계공업부문과 련관된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기술자들이 잘 알수 있게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활발히 조직하고있으며 젊은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대외에도 내보내여 시야를 넓혀주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공장에서 품을 들여 키우고있는 종업원들속에서 새롭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고있다.

그중에서 낮은 공기압력에서도 작업할수 있게 창안한 적재기가 지금 어느 한 탄광에서 시험중에 있는데 한대의 압축기로 2~3대의 적재기를 가동할수 있는 경제적실리로 하여 여러 탄광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밖에도 좁은 막장에서 갱내소운반을 진행할수 있는 3t전차를 비롯하여 현실조건에 맞는 새로운 채취기계설비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준비가 본격적으로 진척되고있다.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의 발전에 큰 품을 넣고있는 공장의 래일이 기대된다.

본사기자

박천견직공장 비로도직장에서

새 기술의 주인공들

우리가 얼마전 인민생활향상대진군으로 들끓는 박천견직공장 비로도직장을 찾았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공업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 새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직장장 김학철동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갖추어졌다고 하여 제품의 질과 생산성이 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주마다 진행되는 기술학습과 기술전습, 경험발표회 등을 통하여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다고, 이 과정에 비로도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생산현장에서 만난 책임기사 계희철동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새 기술의 주인공이 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저녁 무렵이였다. 기운차게 돌아가던 유연창대직기 한대가 갑자기 동음을 멈추게 되였다. 여기저기 아무리 살펴보아야 고장원인을 알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해당 부문 기술자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때 직장일군들은 어떤 결심을 내렸는가.

— 설비의 주인은 우리들자신이다.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해보자.

일군들부터가 팔을 걷고 나섰고 오명진, 강상효, 김명성동무들을 비롯한 로동자들도 떨쳐나섰다. 며칠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의 부분품들을 해체하면서 구조와 동작원리, 기술적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나가는 과정에 이들은 끝끝내 자체로 고장원인을 찾아내고야말았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유연창대직기의 창머리판용수를 자체로 제작할수 있게 되고 여러건의 창의고안들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설비가동률을 훨씬 높이게 된것도 바로 이런 창조의 나날속에 이룩된 성과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인민이 즐겨찾고 인민의 평가받는 질좋은 비로도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 이것이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내세운 목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창조적열정에 의하여 오늘도 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표준조작법갱신과 제품의 질

회창기초식품공장 일군, 종업원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밀고나가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야 합니다.》

회창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가 지난 시기에 비해 10여가지나 더 늘어났다.

물론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난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평가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공장을 돌아보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이들이 중시하고있는 기술지표관리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였다.

그들과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소개한다.

기자: 누룩, 적치 등 여러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건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을 보니 공장제품의 질이 더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지배인 김성근: 설비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고 제품의 질이 저절로 올라가는것은 아니다. 장비가 개선되고 새로운 공정이 확립될 때마다 표준조작법갱신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표준조작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제품의 질을 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일군들과 기술자, 생산자들이 지혜를 합쳐가며 원료조건과 설비갱신수준에 맞는 표준조작법을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 보충하고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일군들부터 기술관리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는 자각이 생긴다.

책임기사 박경남: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주요생산공정들에 대한 자동조종체계를 확립하였다. 배전반의 주요부분품들을 비롯하여 여러 설비부속품을 다 공장의 기술력량으로 만들었다.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부분품들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리용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설비의 기술적특성을 잘 알고 그 운영에서 지켜야 할 조건을 표준조작법에 정확히 반영할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설비에 대한 파악이 있으니 생산과정에 발생되는 이러저러한 현상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보다 면밀히 세울수 있었다.

기자: 좋은 기풍이라고 생각한다. 표준조작법을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신속정확하게 갱신하는것도 좋지만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작업반장 김향숙: 우리 종업원들은 표준조작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것자체를 자신을 속이고 인민을 속이며 나아가서 당과 조국을 속이는 일로 간주하고있다. 표준조작법준수는 조건이 불리하면 어겨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자기가 만든 제품을 인민앞에, 조국앞에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지켜야 할 법규범이다.

지금 우리 생산자들의 관점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누구나 자기가 지켜선 공정에서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기술관리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우리 공장제품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되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 공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본사기자

사색과 노력

축전지생산을 기술공학적요구대로!

이것은 대동강축전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활동에서 틀어쥐고있는 어길수 없는 원칙이다. 기술관리를 잘해야 설비리용률을 높일수 있고 생산정상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는 자각이 종업원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하기에 공장제품의 질적발전을 위해 누구나 현대적인 축전지생산기술을 애써 배우고 앞선 기술을 공장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열풍에 너도나도 뛰여들고있다.

지금도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기술자, 로동자들과 함께 제품의 질적발전을 위한 기술토의를 벌리고있다.

기술적조건을 생산에 앞서 미리 규정해놓기 위해 진지한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더운것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소출을 2배이상 높이는 겹재배방법

성천군 대봉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야 합니다.》

성천군 대봉협동농장에서 받아들인 소출을 2배이상 높이는 겹재배방법을 보면 주목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종자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선택한것이다. 두벌, 세벌농사를 하자면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지대적특성에 맞지 않는 종자를 선택하면 옹근소출을 내지 못한다.

교훈적인 문제가 있다.

두해전 어느 한 작업반에서는 생육기일이 짧은 품종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북부지대의 농촌들에서 널리 받아들인 다수확품종의 강냉이종자를 뒤그루로 선택하였는데 옹근소출을 내지 못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이 교훈에 비추어 작업반들에서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지대적특성에 맞는 종자를 심게 하였다. 결국 지난해 앞그루감자는 물론 뒤그루강냉이농사에서도 옹근소출을 낼수 있었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것은 작물배치를 변두리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한것이다. 일군들은 지난해에 겹재배포전들에 강냉이와 감자를 심도록 하였다. 이때 두 이랑에 강냉이를 넉줄 모아심고 다른 두 이랑에는 감자를 넉줄 모아심었다. 한 이랑에 두줄 모아심은 강냉이포기사이거리는 30㎝, 이랑사이거리는 50㎝로 정하였다. 감자포기와 이랑사이거리도 같은 방법으로 정하였다. 결과 통풍이 잘되였다. 씨뿌리기와 모 옮겨심는 시기도 앞그루, 뒤그루작물들의 수확고를 다같이 높이도록 정하였다. 강냉이모를 옮겨심을 때에는 정보당 흙보산비료 2.5t을 밑비료로 주고 잎이 5~7매일 때에 조절비료 120㎏, 이삭비료 300㎏을 주게 하였다. 감자모 옮겨심을 때에도 정보당 흙보산비료 4t을 밑비료로 주고 잎이 커지고 마디가 늘어나는 시기에 질소비료 110㎏을 주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뇨소비료에 섞어 잎덧비료로 주도록 하였다. 강냉이잎이 3~4매일 때 한주일간격으로 7회이상을 주고 감자는 알이 커지고 마디가 늘어나는 시기에 시비하게 하였다.

겹재배방법도입에서 지력을 높이는 문제는 비료효과가 좋은 감자줄기를 리용하므로 거름을 단벌농사를 지을 때보다 별로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되였다.

품종선택을 바로하고 시기성을 보장하면 세벌, 네벌농사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본사기자 정성일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앞그루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하고있다.
—락랑구역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부속품을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할 기세로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낼 기세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곡생산을 늘이고 농사일을 기계화하는데서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을 찾으시여 뜨락또르부속품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사리원시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올해 농업생산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부속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매달 자기들앞에 맡겨진 부속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상반년부속품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소재생산이 가공에 확고히 앞서나가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주물직장의 일군들은 생산조직과 지휘,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직장앞에 맡겨진 주강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단조직장에서도 형단조의 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소재생산을 가공에 확고히 앞세워 각종 변속기와 치차류 소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1가공직장의 김창선, 오용복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타는 일념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피스톤과 각종 치차류를 비롯한 가공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곽철영, 신영섭동무들을 비롯한 2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기관부속품가공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구지구직장, 공무동력직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들에서도 기본생산단위들의 혁신적성과에 발을 맞추어 지구장비보장과 설비보수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투쟁으로 하여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는 일대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원산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일을 돕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우며 농사에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나 농촌에 최우선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산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농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더 많은 뜨락또르부속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년초부터 매월 부속품생산계획을 수행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드높이 각종 뜨락또르부속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큰 힘을 넣고있다.

최근에만도 공장에서는 각종 뜨락또르부속품의 가공정밀도를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종전에 비해 부속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한 질좋은 부속품들을 들끓는 협동벌들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뜨락또르부속품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소재직장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직장의 로동자들은 중주파유도로를 비롯한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단조작업반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치차류를 비롯한 각종 단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으며 주물작업반에서도 여러가지 소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부속품가공을 맡은 가공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부속품가공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무종합작업반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설비보수와 수리를 제때에 보장하고있으며 장비종합작업반에서는 필요한 지구장비들을 만들어주어 부속품가공에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성과의 비결

청진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생산을 종전에 비하여 거의 두배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공장의 일군들은 말하였다.

—문제해결의 방도는 다름아닌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

언제인가 로동자들과 일손을 같이하며 땀을 흘리던 일군은 휴식참에 크랑크축의 질을 높일수 없겠는가 하고 자기의 심정을 내비치였다.

이때 한 로동자가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가공이 문제가 아니라 소재의 질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열처리방법을 도입하면 능히 풀수 있습니다.》

오랜 기능공의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열처리방법을 받아들이면 전기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크랑크축의 질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수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일군은 무릎을 쳤다.

공장일군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새로운 열처리방법을 도입하여 크랑크축가공뿐아니라 부속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보내여 새로운 열처리방법을 도입한 단위들의 경험도 배우게 하였고 공장기술집단의 힘을 발동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었다. 이들은 이렇게 설비제작과 조립을 끝내고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부속품생산은 늘어나고 그 질이 훨씬 높아졌다.

5월말까지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한 공장에서는 지금 크랑크축, 기통토시, 가락지 등 부속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선군혁명위업을 받드는 자강도로동계급이 받아안은 기쁨과 환희

장군님따라 걸어온 길 원수님따라 끝까지 가리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국가합창단이 비약의 불바람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 로동계급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나라는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훈국가합창단이 자기 도에 온다는 소식에 접한 자강도의 로동계급은 공연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더우기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한지 1돐이 되여오는 때에 공훈국가합창단을 맞이하게 된 자강도로동계급은 류다른 기쁨과 환희에 휩싸이였다.

이번에 공훈국가합창단은 화려한 극장이 아니라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제힘으로 일떠세우고 로동계급의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해방원에서 공연의 막을 올리였다.

공연무대에 처음으로 오른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는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위력으로 하여 로동자들의 심금을 순간에 틀어잡았다.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어도 혁명군대와도 같은 기백과 전투력으로 투쟁의 년대마다에 승리와 위훈만을 새겨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자강도의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혁명군가를 마음속으로 합창하였다.

먼 옛날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골의 고요를 깨치던 자강땅에 자력갱생의 무쇠마치소리가 울려퍼지고 최첨단돌파전의 봉화가 타오르게 하신분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하기에 관현악과 노래련곡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에 울려퍼지는 수령흠모의 노래들은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혈연의 정을 맺고 투쟁하여온 나날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주고있는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구절구절을 새기면서 로동계급은 전화의 불길속에서 시작되여 수십년세월 뜨겁게 이어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의 박력있는 음악형상에서 관중들은 로동계급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찾아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 삼복철 강행군로정을 그려보며 눈굽을 적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강철의 대오로 자라난 자강도로동계급에게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노래가 있으니 그 노래가 바로 명곡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이다.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수령과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투쟁의 나날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신념과 의지가 있어 자강도로동계급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온 나라의 앞장에서 헤쳐나갈수 있었으며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와 같은 시대의 명곡을 낳게 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공연무대에 오른 노래들마다에 승리자의 추억과 긍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뜨겁게 굽이치기에 자강도로동계급은 열렬한 박수속에 재청을 하는것이다.

앞날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락관주의는 자강도로동계급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비상히 높은 경지에서 발현되고있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여온 자강도의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무대에 울려퍼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노래는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준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미더운 로동계급을 만나시기 위해 자강도를 찾아오시여 영웅적로동계급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예술공연도 함께 보아주신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자강도로동계급은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이 세상에 우리들처럼 존엄높고 행복한 로동계급은 없다는것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노래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령도만 받든다》는 자강도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새시대에 조선로동계급의 본때와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드높은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지금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은 조선속도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침략의 무리들을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를 불태우는 자강도로동계급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주고있다.

공연을 본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자강도로동계급의 전투적열정과 각별한 관심속에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계속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불멸의 력사 충정으로 빛내이리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이 시작된 지금 온 자강땅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박성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아안았으며 최후승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공연무대에 울려퍼지는 시대의 명곡들을 들으며 우리는 자강땅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력사와 사랑의 서사시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수십년세월 우리 자강도의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헤쳐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우리 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강땅에 혁명군가의 포성을 울려주시여 세기를 이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는 자강도로동계급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터쳐주시였다.

자강도의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나라의 기계제작공업과 최첨단돌파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강계정신의 창조자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더욱 빛내여나가겠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어느 한 기계공장의 지배인 고병현동무는 올해 6월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여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우리들과 함께 보아주신 때로부터 1돐이 되는 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안으며 우리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나날에 돌려주신 가지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떠올라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공훈국가합창단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자강도의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려주신 오늘의 이 영광과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선군혁명의 앞장에서 조선로동계급의 본때와 기상을 떨쳐나가겠다고 하였다.

한 기계공장의 기술일군인 김정철동무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통하여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지펴주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와 헌신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나라앞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CNC화의 구상을 안으시고 우리 자강도로동계급을 찾아오시였다.

시련의 겨울을 헤치며 강성부흥의 새봄을 앞당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는 우리 로동계급에게 꺼질줄 모르는 심장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그 불길을 안고 우리들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여 기계공업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게 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을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들고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고 결의다지였다.

자강땅을 뒤흔드는 군가뢰성

혁명군가 울려퍼지는 해방원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장소인 해방원은 자강도의 한 기계공장 로동계급이 일떠세운 건물이다.

지난해 이곳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일군들의 청을 받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즐겨찾는 이 집은 평양의 해방산과 잇닿아있다는 의미도 반영되고 최첨단돌파로 로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는 목표도 뚜렷이 안겨오게 해방원으로 이름짓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방원이라는 명칭에는 반미대결전에서도 기어이 승리하고 남녘의 로동계급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야 할 우리 로동계급의 성스러운 임무도 반영되여있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전하는 해방원에서 진행되는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은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다는 공연으로 그 감화력을 백배해가고있다.

몇시간만에 형상된 노래

자강도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을 위한 공연준비과정에 공훈국가합창단 창작가들은 이곳 로동계급이 사랑하는 전시가요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전쟁의 승리를 몇달 앞둔 때에 자강도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에게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안겨주시고 유명한 창작가들이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격려하는 노래를 짓도록 하여주시였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조국의 영예지켜 선봉에 나선 우리는 영웅조선 강철의 전사다라고 격조높이 구가한 전시가요는 세대를 이어가며 자강도로동계급이 간직한 신념과 의지의 노래인것이다.

하여 공훈국가합창단에서는 긴장한 일정속에서도 전투적으로 창조전투를 벌리여 공연첫날에 전시가요를 울림으로써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재 청 !

이번 공훈국가합창단 공연무대에는 혁명군가와 함께 생활적인 노래들이 많이 올라 관람자들에게 혁명적랑만과 희열을 북돋아주고있다.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의 구절마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헤쳐온 투쟁의 나날속에 이룩된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이 가슴후덥게 안겨온다.

전기화의 본보기, 최첨단돌파전의 승전소식을 비롯한 많고많은 자랑이 명곡에 다 담겨져있어 관람자들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재청!》, 《재청!》하고 웨치고있다.

이 노래뿐아니라 《내 심장의 목소리》, 《전선행렬차》와 같은 생활적인 노래도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

자강도로동계급의 혁명적랑만과 열정으로 하여 공연무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글 본사기자 차 수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현지에서 전송)

대담한 실천으로 양어에서 변이 나게 하자

일군들이 대오의 기관차가 될 때

의주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호수와 저수지, 강하천들이 있기때문에 일군들이 사업을 잘 짜고들면 지방의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양어장들을 훌륭히 건설할수 있습니다.》

양어를 하려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사회주의맛이 나게 통이 크게 하여야지 폐기농사를 짓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양어에서 비약이 일어나게 하자면 일군들이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

의주군의 양어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된 비결의 하나는 바로 일군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달라붙은데 있다.

어느해 군의 양어부문 실태를 료해하던 군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군에는 능력이 큰 저수지가 있었다. 여기에 새끼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넣어 기르면 양어의 덕을 크게 볼수 있었다. 그런데 종어사업소의 새끼물고기생산량은 매우 적었다. 그 능력을 늘이는데 근본문제가 있다고 본 그는 먼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저수지와 그 주변의 10여리안팎을 거듭 돌아보았다. 그리하여 하천기슭을 따라 10정보의 새끼물고기못을 건설할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였다.

그는 일군들의 모임에서 새끼물고기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때 이것을 군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하지만 책임일군의 립장은 확고하였다.

《우리 일군들이 기관차가 되여 앞채를 메고 달리면 됩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일군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나선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마련하였다. 건설이 시작된 후에는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저마다 먼저 어깨를 들이대며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그러자 군안의 인민들도 양어는 곧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적극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새끼물고기못건설이 성과적으로 완공되게 되였다.

군의 실정에서 10정보의 새끼물고기못을 건설한것은 물론 큰 성과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이 닳도록 뛰면서 저수지아래에 5정보의 새끼물고기못을 더 건설할수 있는 적지를 찾아냈다. 그리고 건설을 군적인 사업으로 내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양어부문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못을 실리있게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기계수단들이 동원된 가운데 건설전투가 종전보다 더 통이 크게 벌어졌다. 저수지앞으로 우불구불하게 뻗어있던 하천물길을 곧추 펴면서 넓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물길제방을 겸하는 9m폭의 도로를, 다른쪽에는 못들을 건설하였다.

일군들은 새끼물고기생산기지를 기술적으로나 문화적면에서 나무랄데 없이 꾸릴 목표를 제기하고 그 투쟁의 앞장에 섰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결과 저수지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들고나갈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못들이 바둑판처럼 규모있게 건설되였다. 못들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물길도 콩크리트구조물로 견고하게 형성해놓았다. 그리하여 양어에서 기본인 물문제를 완전히 풀고 언제나 좋은 수질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못들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성분이 있는 퇴수는 논판에 흘러들어 농사에 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물길과 낡은 도로들을 정리하고 웅뎅이들을 메우면서 못을 건설하는 과정에 여러 정보의 새땅도 찾아내여 먹이밭과 농경지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못이 늘어난 조건에 맞게 알깨우기에 리용할 건물을 건설하는 등 이미 축성한 새끼물고기생산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에 군적인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올해 양어부문에서 변이 나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기 위해 기관차가 되여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군의 양어부문 사업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철

물고기알받이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양어부문에서 5~6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알받이를 기술적요구대로 잘하여야 많은 새끼물고기를 생산할수 있다.

물고기알받이를 잘하자면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우선 엄지물고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 알가짐수가 많아지며 크기도 비슷한 질좋은 알을 받을수 있다. 겨울나이를 하면서 약해진 엄지물고기관리에서 중요한것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은 먹이를 주는것과 함께 못에 질좋은 거름을 넣어 자연먹이를 최대한 리용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알받이못과 알깨우기탕크준비를 잘해야 한다. 알받이못은 생석회로 소독하며 잡풀이나 오물을 말끔히 없애버려야 한다. 알깨우기탕크는 물이 새지 않고 제대로 순환되는가를 확인한 다음 소금물소독을 해야 한다.

엄지물고기를 운반할수 있는 들것이나 그물을 비롯한 알받이도구들은 철저히 끓는 물이나 소금물로 소독해야 한다.

물고기알받이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기념어, 화련어, 초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은 엄지물고기들의 성숙정도를 판정하고 알받이시기를 정해야 한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생리적자극제를 주사하여 알을 제때에 받아 수정을 잘 시켜야 한다. 먼저 알받이그릇을 깨끗한 가제천으로 닦아 물기를 없애고 알을 받은 다음 수컷의 정액을 짜서 정자가 알문을 찾아 정확히 가닿도록 새깃이나 닭털로 골고루 저어주어야 한다. 그후 맑은 물을 붓고 다시 골고루 저어주면서 잡물질들을 건져내야 한다. 알깨우기탕크의 물압조절을 잘하여 수정된 알이 넘어나거나 가라앉지 않게 하며 물이 들어오는 입구의 그물에 감탕이나 오물이 걸리지 않도록 자주 털어주어야 한다.

잉어, 붕어를 비롯하여 자연적으로 알낳이를 하는 물고기들이 강이나 호수, 저수지들에서 알쓸이를 한 물풀이나 알받이틀을 제때에 못에 옮겨 알깨우기를 잘하여야 한다.

수산성 양어관리국
처장 한문철

새끼물고기생산에 힘을 집중

각지 양어기지들이 새끼물고기생산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수산성 양어관리국을 비롯한 양어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알받이와 알깨우기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과학적인 새끼물고기생산방법을 받아들이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염주청년양어장을 비롯하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양어기지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높이 세운 새끼물고기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실정에 맞는 인공수정과 알받이, 알깨우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여러가지 새끼물고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시와 남포시 그리고 연탄, 신원, 숙천군을 비롯한 여러 도, 시, 군양어기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적기에 많은 새끼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분발해나서고있다. 이들은 엄지물고기상태를 잘 관찰하고 여러가지 도구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알받이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물보장을 비롯하여 알깨우기실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정에 맞게 해결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깨우기실수률을 높이기 위해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그리하여 룡정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새끼물고기생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합쳐가고있다. —순천시 직동탄광병원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탄부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집체적지혜를

독자의 편지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저의 집으로는 언제나 밝은 웃음을 짓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구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저의 집을 자주 찾아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따뜻이 돌봐주고있습니다.

명절을 비롯하여 때없이 저의 집 문을 두드리며 새로 나온 도서들도 안겨주고 고무적인 이야기도 들려주며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군 하는 일군들의 그 진정에 정말이지 감동을 금할수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새 집을 마련해주고 이사준비까지 깐깐히 해주고도 또다시 바쁜 시간을 내여 집에 찾아와 구석구석 집안팎을 돌아보며 세심히 보살펴주는 그 마음을 저는 우리 영예군인들에게 돌려주는 당의 뜨거운 사랑으로 받아안았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남포시당위원회 로동자 한순복동무와 같이 이제는 너무도 집에 자주 찾아오다나니 친혈육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다심하고 진실한 마음에 떠받들려 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좋아져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적으나마 지원사업도 하게 되였으며 얼마전에는 귀여운 딸까지 보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사는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입니다.

항구구역 은덕1동 86인민반
영예군인 장성철

꾸바대사관 성원들 화성남새온실농장에서 친선로동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0일 조선꾸바친선 화성남새온실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남새밭김매기를 하였다.

쉴참에 그들은 농장의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친선대표단 귀국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조선라오스친선협회 위원장인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이 10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원보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끼얏띠싹 깨오반딧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우리 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이것은 집단주의가 사회의 기초로 되여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의 인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사는것을 리상으로 내세운 예수도 이 나라에서는 할 일이 없을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온 나라 인민이 한가정, 한 식솔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것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생활이다.

혁명동지를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고 꽃나이청춘들이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잃은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평범한 일로,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 자기희생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들은 수없이 많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훌륭한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화원

인간이라고 뜨겁게 불러주신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채광공이였던 박태선동무,

광산에는 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원래 말이 없고 대중앞에 나서기도 저어한 그였다. 허나 박태선동무가 남긴 생의 흔적은 얼마나 뚜렷했던가. 혁명동지를 위한 고귀한 희생정신은 한순간에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박태선동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가 아니라 《우리》가 고이 간직되여있었다. 자신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며 소대의 어느 누가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면 그 빈자리에 자기를 세우던 박태선동무였다. 이런 불같은 인간, 동지적사랑의 체현자였기에 막장천정에서 3t이 넘는 큰돌이 떨어지는 위기일발의 순간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동지들을 구원할수 있은것이다.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제9작업반 4분조장이였던 리창선동무, 조선인민내무군 군관이였던 로력영웅 신정섭동무, 평산대리석광산 채석직장 7작업반 채석공이였던 한영철동무, 강원도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이였던 공화국영웅 김금수, 한병남동무들, 황해북도인민보안국 아래단위 인민보안원이였던 로력영웅들인 리광철, 리충건동무들과 조선인민군 중대장이였던 함주현동무는 뜨거운 인정미가 흘러넘치고 집단주의가 가슴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렸던 고결한 미덕의 주인공들이였다.

지난해의 어느날 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했던 군인을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전투가 벌어지던 황해남도인민병원에서는 이런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군인에 대한 두번째의 피부이식수술이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해주의학대학 학생 백수십명과 수많은 교직원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언제 왔는지 수술장앞복도에는 수많은 인민군 군인들이 와있었다. 군인들모두가 귀중한 전우를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먼저 떼여달라고 의료일군들에게 절절히 말하였다. 그때 수술장앞에서 질서를 잡느라 애쓰던 의료일군들의 얼굴에 흘러내린것이 땀이였던가, 눈물이였던가.

군인들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대학생들이 있는 힘을 다해 군인들을 밖으로 떠밀어내며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지금은 조국통일대전을 위해 인민군대가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전투준비를 갖춘 때가 아닌가. 단숨에 적진을 목사발내야 할 군인들이 전장도 아닌 여기에서 몸에 흠집을 낸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인민들이 그걸 허용치 않는다. 군인들의 피부를 단 한점이라도 떼여내서는 절대로 안된다. 병사에게 필요한 피부는 우리가 다 맡겠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목격할수도, 체험해볼수도 없는 아름다운 화폭이였다.

우리 사회의 군민대단결이 어떠한 정신세계와 동지적사랑, 혈연의 정으로 굳건히 다져진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에는 남이란 없다.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일심단결의 화원인 우리 사회에서 미덕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으로, 고결한 의리로 간주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훌륭한 동무라고 은정어린 축복을 보내주신 리철옥동무는 고참탄광 대사갱의 평범한 운전공이였다. 영예군인 변명일동무와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하던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변명일동무가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저없이 달려간 그 발자욱이였다. 변명일동무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게 밑거름이 되려는 우리 세대의 자각이였다.

부모잃은 43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훌륭히 키워 조국앞에 떳떳하게 내세운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인 이천군 신당축산전문협동농장 박연화동무, 그는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성원으로 사는 공민이라면 오늘의 시대에 어떤 지향과 책임감을 안고 심장을 불태워야 하는가를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

태양을 떠나 만발하는 화원을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혁명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혁명전사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며 동지애의 참된 진리도 가르쳐주시고 우리 사회의 고상한 혁명적풍모를 더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하시는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노래소리는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우리 인민 한사람한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으로 불러주시며 우리 조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화원으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긍지높은 현실이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우리 집, 그 화목한 대가정의 크나큰 의미, 따뜻한 정을 더 뜨겁게 체험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지난해 12월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 정형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원수님께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그것을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당책임일군에게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도당위원회가 항상 관심을 두고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료해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라고, 이제는 춥다, 춥다들 하는 겨울이라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고 특히 아이들을 부모잃은 설음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도당책임비서와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동무들에게 자신께서 직접 주는 과업이라고 은정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이 세상 제일로 인민을 사랑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의 집, 사회주의대가정에는 언제나 따스한 봄빛만이 흘러넘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내 나라는 미덕이 봄날처럼 꽃펴나는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화원으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아이들을 위하여 걷는 길

허천군상업관리소 상산로동자구 검덕산상점 김호남동무

상산로동자구는 허천군 읍에서도 거의 200리나 떨어진 심심산골이다. 이곳에 검덕산지질탐사대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학교가 있고 그 어린이, 학생들을 위하여 진정을 바쳐가는 한 녀성이 있다.

허천군상업관리소 상산로동자구 검덕산상점 김호남동무, 그는 오늘까지 10년가까이 탐사대마을아이들에게 콩우유를 생산공급하는 일을 스스로 맡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여있습니다.》

상점일을 하면서 콩농사도 짓고 콩우유도 만들어 매일 학생들에게 공급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호남동무는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어갈 일념안고 근 10년세월 하루와 같이 그 일을 해오고있다.

상품인수를 위해 읍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온 다음날에도,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콩우유를 안고 아이들을 찾군 한다.

언제인가 저녁늦게 집에 들어온 안해에게 남편 리기록동무가 힘들지 않은가고 하며 걱정어린 눈길을 보냈었다.

《제가 고생한 보람으로 우리 산골마을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기둥감으로 된다면 그이상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나요. 그것을 생각하면 막 힘이 샘솟군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안해를 미덥게 바라보며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김호남동무는 콩밭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콩농사에 힘을 넣었고 콩우유를 만드는 일도 도맡아 하고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콩우유를 가지고 매일 찾아오는 김호남동무를 《콩우유어머니》라고 정답게 부르며 무척 따르고있다. 검덕산지질탐사대 당조직에서 그의 일을 힘껏 도와주고있다.

읍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누구도 가기 저어하는 깊고 깊은 산골의 지질탐사대원들을 위해 상산로동자구의 검덕산상점에 자진하여 달려간 김호남동무였다. 수십년전 꿈많던 처녀시절 그곳에 정을 붙이고 삶의 보금자리를 편 그때부터 그는 오늘도 탐사대원들과 마을사람들, 아이들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우리 사회에서만 꽃필수 있는 이야기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에서

사랑과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이 땅에 미덕의 향기가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습니다.》

본사편집국으로는 이 땅에 꽃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은 편지들이 매일과 같이 오고있다. 각지 독자들의 편지마다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서로 돕고 이끌며 한식솔, 한형제로 사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하나하나의 찬가와 같다.

룡성구역 어은동에 사는 영예군인 림만선동무는 차원익전쟁로병의 소행을 담은 편지를 보내여왔다.

차원익전쟁로병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은혁명사적지 관리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있으며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과 조국보위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그는 영예군인 림만선동무의 집을 자주 찾아 그가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생활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우던 전화의 나날의 그 정신으로 생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수놓아가는 로병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영예군인과 새 세대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있다. 림만선동무는 이런 혁명선배들이 있어 우리 혁명의 대는 꿋꿋이 이어지는것이며 새 세대들로 하여금 전세대들처럼 한생을 후회없이 살맹세로 가슴을 불태우게 하고있다고 하였다.

대성구역 룡흥1동에 사는 공용덕동무는 스스로 당보체송사업을 돕고있는 룡흥2동 54인민반에 사는 박철봉로인의 소행을 전하여왔다.

박철봉로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당보체송사업을 적극 돕고있다. 최전연부대에서 수십년세월 원쑤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살아온 그가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고 하여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복무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표창장을 받아안은 영광을 가슴에 새기고 한생을 조국을 받드는 뿌리로 살 결심을 안고 스스로 그 일을 맡아나선것이다. 그는 신문매대앞에서와 인민반에서 《로동신문》에 실린 소식들을 해설해주기도 한다.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스스로 교양자, 선동자가 된 어제날의 인민군대좌,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품들여 키운 인민군대지휘관들의 풍모를 보고있으며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제도를 한목숨바쳐 지켜갈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중화군당위원회 일군들인 김은철, 주정용동무들은 중화군읍에 사는 인민군대후방가족인 한성수동무의 생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그들은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한성수동무를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보살펴주고있으며 불편한 몸인 그가 후방가족답게 생활을 전투적으로, 락천적으로 하도록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이고있다.

하기에 한성수동무는 초소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한목숨바쳐 지켜가라는 당부를 눈물속에 적군 한다.

이밖에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독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에 향기를 더해주는 참된 인간들에 대한 소행을 전하여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꽃펴나는 이런 미풍들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편지들의 주인공들도 훌륭하다. 그리고 그들의 소행을 한자두자 적어 본사로 보내준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 못지 않게 소중하다. 아름다운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아는 법인것이다.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인간세상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수리공장 종업원들 일터를 알뜰히 꾸려가는 청남전기설비 본사기자 찍음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기가 일하는 공장과

뜻깊은 결혼식날에

지난 4월 어느날 평천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한 식당에서는 사람들의 축복속에 한쌍의 청춘남녀의 결혼식이 진행되였다.

축하의 박수소리가 울리는 속에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신부와 의젓한 양복차림에 싱글벙글하는 신랑이 뜻깊은 사진을 찍고있었다.

활짝 웃고있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도 흐뭇하게 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생활기풍과 건전한 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

알고보니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평천구역 륙교1동에 살고있는 전해옥영예군인의 아들 최현일동무와 신부 장진향동무였다.

《친혈육의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상도 차려주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전해옥영예군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랑인 최현일동무는 영예군인 전해옥녀성의 맏아들이다. 전해옥녀성은 맏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마음을 썼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런 심정을 알고 구역과 동의 일군들이 아들의 결혼식준비를 하고있은 줄 그가 어찌 알았으랴.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날 구역의 일군들이 전해옥녀성의 집을 찾아왔다.

한 일군이 전해옥녀성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며 말하였다.

《맏아들의 결혼식준비를 우리가 맡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해옥녀성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 가정의 일을 구역적인 사업으로 떨쳐나 해주겠다니 들을수록 영예군인은 눈물이 앞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어찌 그들뿐이랴.

10여년을 한식솔의 정을 잇고 산 평천구역인민보안서 아래단위의 인민보안원 안정국동무, 중구역에 사는 윤옥주동무, 창광유치원에서 일하는 신영숙동무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고마운 사람들이 모두 제일처럼 떨쳐나 영예군인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지성을 다 바치였다.

…

전해옥녀성은 맏아들의 새살림을 위해 구역의 일군들과 오랜 세월 영예군인을 위해 지성을 다 바쳐온 한식솔과도 같은 사람들이 가정용품, 새 이불과 갖가지 기념품들을 마련해주었다고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전해옥녀성은 앞으로 고마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자식들도 맡은 일을 더 잘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탄광 7갱 갱장 리금철동무

는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탄부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켜 해마다 갱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그가 탄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고 탄부생활을 시작한지도 20년이 된다. 그 나날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갱장으로 자라난 리금철동무는 치밀한 작업조직과 능숙한 지휘로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올해에도 새로운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작업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을 석탄증산의 기본고리로 틀어쥔 그는 탄부들과 함께 동발나무를 비롯한 부족되는 자재와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언제인가 막장에 집채같은 암반이 나섰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앞장에서 서서 암반을 까내여 묻혀버릴번 했던 많은 석탄을 기어이 캐내고야말았다.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리금철동무는 탄부들의 생활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리금철동무는 오늘도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석탄증산을 위한 진격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봉일

각종 레드등을 널리 생산도입

국가과학원 신의주첨단기술교류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 신의주첨단기술교류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새형의 투광등을 제작하여 신의주시에 도입일반화하고있다.

소장 고송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사들과 기술자들은 레드등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생탑들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레드등은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밝음도가 높은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들은 새형의 투광등을 제작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이곳 기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실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 지금까지 수십개의 투광등을 제작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과 영생탑들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와 국가과학원당위원회에서는 새형의 투광등과 가로등, 조명등제작을 발기한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혁신적인 계획을 지지해주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며 그들이 새 기술개발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적극 떠밀어주었다.

결과 이들은 올해에 신의주시 가로등사업소와의 련계밑에 광명성절과 태양절을 계기로 수백개의 가로등을 제작하고 시의 주요도로들에 설치하여 국경관문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불과 몇달동안에 1만개이상의 7, 9, 12W 조명등을 제작하고 시의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의 조명을 보장함으로써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가지 종류의 투광등과 조명등생산공정을 꾸려놓은데 이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과학기술룡마를 타고 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각종 레드등생산에서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세포땅에 남긴 못 잊을 추억

대동강맥주공장 공무동력직장 로동자였던 송광혁동무

지난 4월 27일,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있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인민봉사총국돌격대앞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채벌장에 가서 통나무를 운반해야 할 긴급과제가 제기되였다.

그날 돌격대에서는 모임을 열고 당원들로 통나무운반작업을 조직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송광혁동무가 정치일군을 찾아왔다.

《저도 함께 가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은 절절하였다.

그러는 그를 미덥게 바라보며 정치일군 한경수동무는 말하였다.

《오늘은 휴식일인데 좀 쉬오.》

그러나 돌격대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인 송광혁동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두해전 청년절경축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그는 공장에서 일할 때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일할 때나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몸을 내대군 하였다. 그날 작업장으로 떠나는 대오에서슴없이 뛰여드는 그에게 지휘관이 짐짓 엄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일이 끝나면 〈처벌〉로 이틀동안 휴식을 주겠소.》

그러자 송광혁동무는 웃음속에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

그날 비를 맞으며 채벌장에서 화물자동차에 통나무를 싣던 송광혁동무는 통나무가 미끄러져 내리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때 주변에서는 여러명의 돌격대원들이 일하고있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그는 《비키라!》 하고 소리치며 돌격대원들을 밀치고 몸을 날려 통나무를 막았다.

《광혁동무—》

돌격대원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송광혁동무를 부둥켜안고 애타게 불렀다. 그 부름소리에 송광혁동무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정다운 동무들의 모습뒤로 푸른 하늘이 우렷이 안겨왔다.

이윽고 송광혁동무는 그처럼 친근했던 동무들의 손을 꼭 잡고 《세포등판…》 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

《그가 기발한 착상을 할 때마다 돌격대원들은 대학졸업생이 역시 다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돌격대에 둘도 없는 보배였습니다. 일이면 일, 노래면 노래…이야기는 또 얼마나 구수하게 했던지. 처녀들이 반할만 한 총각이였습니다.》

《지금도 광혁동무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막 안겨옵니다. 늘 우스개소리로 대원들을 웃기군 하는 그에게 돌격대에서는 웃음보따리라는 별명까지 붙였댔습니다.》

그에 대한 돌격대원들의 추억은 꽃처럼 아름다왔고 퍼내고퍼내도 끝이 없는 샘물같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지난봄 돌격대가 거름실어내기를 할 때였다. 거름량은 많았고 시간은 긴박했다.

송광혁동무는 한동안 생각을 굴리였다. 그러던 그는 무릎을 탁 치며 화물자동차운전사에게로 달려갔다. 부림작업시간을 줄일 좋은 방도가 떠올랐던것이였다. 그날부터 돌격대의 거름실어내기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그때뿐이 아니였다.

그는 로력이 긴장하여 먹이풀판조성과 비배관리에서 애를 먹고있다는것을 알고 휴식도 미루어가며 기발한 착상을 하여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는 방도도 내놓았다.

한공장에서 일하였다는 돌격대원 연성호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해전 가을 어느날 공장의 청년동맹일군인 송광혁동무는 연성호동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난 세포등판으로 갈것을 결심했어. 어때? 청춘시절에 해볼만 한 일이지.》

그러면서 그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으로 달려나가 청춘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자고 절절히 말하였다. 연성호동무는 말없이 그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언제인가 불붙는 집에 뛰여들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한 그였다. 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 청년동맹원들을 이끄는 송광혁동무를 직장의 청년들은 친형처럼 따랐다. 하기에 그는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려는 송광혁동무의 결심을 따르게 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송광혁동무는 연성호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로동자들과 함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

돌격대원 김영란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생벌이 되지만 머리가 숙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추억을 더듬었다.

어느날 김영란동무는 늘 해진 장갑을 끼고 일하는 송광혁동무의 손에 한뜸두뜸 성의껏 만든 새 장갑을 쥐여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광혁동무에게 주려고 만든 장갑이야.》

송광혁동무는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의 손에서 형과 함께 자란 송광혁동무는 늘 곁에서 세심히 보살펴주는 김영란동무를 친누이처럼 따랐다. 그런데 며칠후 김영란동무는 한 돌격대원이 끼고있는 낯익은 장갑을 보게 되였다.

(광혁이, 동문 어쩌면 제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인가 일할 때 누군가 손에 쥐여준 몇알의 구운 감자마저도 처녀돌격대원들에게 다 나누어준 송광혁동무, 한 돌격대원이 뜻하지 않은 병으로 앓을 때 먼길을 달려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온밤 머리맡에서 환자를 위해 정성을 다한 그의 모습이 김영란동무의 머리속에 어제일이런듯 되새겨졌다. …

우리에게 한경수동무는 한권의 작은 수첩을 꺼내놓았다.

《조선로동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맨 앞페지에 새겨진 이 글발을 보고 우리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기수가 되여 달려온 송광혁동무의 모습을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조선로동당원, 그 소중한 소원을 가슴깊이 묻어두고 그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청년전위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

세포땅에 못 잊을 추억을 남긴 20대의 청년 송광혁동무, 그는 비록 우리곁을 떠났지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그의 생은 값높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추악한 대결광신자들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북침야망에는 멸망이 따르기마련이다

얼마전 박근혜가 《세월》호대참사로 인한 극도의 통치위기를 수습할 목적으로 새 청와대안보실장임명놀음을 벌려놓았다.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를 청와대안보실장자리에 올려앉힌것이다.

김관진으로 말하면 리명박역도가 집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피뢰국방부 장관자리에 틀고앉아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그 누구보다도 미쳐날뛰여온 특등호전광, 무지막지한 군사깡패이다.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조선반도에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도의 긴장국면이 조성된것은 김관진역도의 호전적망동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이자는 이미 그 누구의 《도발》이 있을 경우 《쏠가요 말가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고아대며 졸개들을 무분별한 군사적충돌에로 마구 내몰고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피대를 돋구며 반공화국도발에 기승을 부려 보기 드문 전쟁미치광이로 악명을 떨치였다. 얼마전 피뢰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가 《북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사상 류례없는 대결폭언을 줴친데 이어 피뢰해군깡패들이 서해열점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수행중에 있던 우리 해군함선들에 선불질을 해댄것도 김관진역도의 계책과 부추김에 따른것이다.

박근혜가 이런 천하에 둘도 없는 악질호전광, 대결광신자를 피뢰당국의 외교와 안보문제를 총괄한다고 하는 청와대안보실장으로 내세운것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가 아니라 정치군사적대결의 길로 계속 질주하면서 한사코 북침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려는 흉계의 발로로서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다. 현실은 박근혜의 대결정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가 추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완전파국과 북침전쟁도발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현 피뢰집권세력의 《대북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전쟁정책이다.

박근혜가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국방력량》이라고 떠들어댄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집권초기부터 《북에 끌려다닌 남북관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느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할것이라느니 하는 고약한 악담을 늘어놓으며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회담과 접촉들을 망쳐놓았으며 《격멸》이니, 《응징》이니 하는따위의 호전적망발들을 내뱉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도발소동에 기승을 부리였다.

피뢰당국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의 맨 앞장에서 날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군부패거리들이다.

박근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기가 살아난 피뢰군불한당들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대북억지력》을 부르짖으며 미국과 함께 맞춤형억제전략을 정식 꾸며낸데 이어 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북침전쟁도발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였다. 전쟁열에 들뜬 피뢰군부호전광들은 미국의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수개월동안이나 《키 리졸브》, 《독수리》,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을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바싹 몰아갔다.

이런 첨예한 정세하에서 호전광들이 《북은 없어져야 할 나라》이니 뭐니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결폭언을 쏟아내고 서해열점수역에서 우리 해군함선들에 선불질을 해댄것은 그야말로 전쟁의 불꽃을 탕탕 날리는 무분별한 모험이 아닐수 없다. 피뢰호전광들의 이 무분별한 전쟁광기로 하여 북남사이에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박근혜가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첨예한 시기에 청와대안보실장자리에 김관진과 같은 정치문외한, 대결과 전쟁밖에 모르는 군사깡패를 올려앉힐수 없다.

피뢰집권자는 김관진역도를 청와대안보실장자리에 등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자기들은 대화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결과 전쟁책동에만 매달리겠다는 로골적인 신호를 보내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김관진역도의 청와대안보실장임명으로 북남관계가 더욱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치닫고 북침핵전쟁발발위험이 더한층 고조되게 될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대화와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택하고있는 박근혜패당의 분별없는 망동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말마적발악이다.

지금 현 피뢰집권세력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최근의 남조선정국은 박근혜일당이 민심을 잃고 헤여나올수 없는 파멸의 수렁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뢰패당은 파쑈독재통치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얼마전에 있은 《세월》호침몰사고는 박근혜일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무능력, 패륜패덕이 빚어낸 필연적산물이다. 인민들의 분노는 항거의 불길이 되여 도처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로 하여 박근혜의 통치기반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당황망조한 박근혜패당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의 강화에서 찾고있다.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반공화국도발에 더욱 악착스럽게 매달리는것은 피뢰통치배들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최대한으로 격화시켜 분노한 민심의 눈길을 다른데로 돌리고 《정권》안보를 실현해보려는것이 그들의 속심이다. 하지만 대결로써는 언제 가도 안보를 실현할수 없다.

박근혜패당의 망동을 지켜보며 지금 우리 겨레는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전쟁밖에 없다는 력사의 교훈을 다시금 뼈저리게 새기고있다.

박근혜가 김관진과 같은 악질대결분자에게 의거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지만 그것은 저승길을 재촉하는 우둔한 망동으로 될뿐이다.

야망에는 멸망이 따르기마련이다.

남조선피뢰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대결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나온 북남관계사는 민족을 반역하며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미쳐날뛴 반역도배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북침야망에서 깨여나야 한다.

심 철 영

인권모략책동의 종착점은 파멸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피뢰역적패당이 말썽많은 유엔《북인권사무소》를 기어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박근혜는 남조선을 행각한 전 유엔《북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에게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로 《북인권상황조사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였다느니, 《북의 인권상황을 남과 북주민들이 알게 하겠다.》느니 하는따위의 망발을 늘어놓았다. 피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가 반공화국《인권》모략단체와 대결광들의 《중요한 장소》로 될것이라느니, 그 누구의 《인권》침해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느니 하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피뢰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가 얼마나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유엔《북인권사무소》는 허위와 날조로 가득찬 《북인권결의안》에 따라 조작된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거점이다. 그런 불순한 기구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는 자체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에 대한 극악한 모독이며 동족대결의 격화를 노린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에는 그 어떤 인권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전체 근로인민이 누구라 할것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으며 당과 국가의 숭고한 인민적시책으로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삶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동해의 명승 송도원에 세계 최상급의 아이들의 궁전이 솟아나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을 문제시하여야 할 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이번 《세월》호참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박근혜역적패당이야말로 패륜패덕과 인간에 대한 멸시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극악한 인권범죄자들이다. 지금 남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는 생때같은 자식들을 졸지에 잃은 부모들의 통곡이 하늘에 닿고 당국의 악정을 저주하며 절망의 길을 택하는 자살자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있으며 《어디서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모를 불안한 세상》,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저주와 원한이 비발치듯 하고있다. 남조선을 처참한 인권의 페허로 전락시킨 극악한 인권범죄자들이 도리여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니 뭐니 하고 수선을 떠는것이야말로 만사람을 웃기는 가소로운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피뢰들은 입만 벌리면 《북인권상황》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주절대고있는데 그래 그렇게도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자들이 날바다에서 표류하던 우리 선원들을 강제랍치하여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억류하고있는가. 피뢰패당의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놀음이야말로 정의와 진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신성한 인권에 대한 극악한 모독이며 유엔의 체모에 흙탕칠하는 반인륜적범죄이다.

피뢰들이 유엔《북인권사무소》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데는 극히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 그것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국제화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어떻게 하나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와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것이다. 집권초기부터 《북인권》문제해결을 《대북정책의 중대한 과제》로 내세우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발광해온 박근혜패당이다. 최근에도 그 누구의 《인권문제해결》이 《통일의 기본》이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북인권법》의 《국회》통과를 획책하고 국제무대에서 《북인권결의안》조작에 발벗고나섰다. 이번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의 남조선설치놀음도 그 연장선에 감행된것이다.

우리는 이미 유엔《북인권사무소》의 남조선설치가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존엄을 모독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로 된다는데 대해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그것을 한사코 강행하고있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

대결책동의 종착점이 비참한 파멸이라는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우리가 박근혜패당의 도발적책동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결광신자들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은 정 철

날로 높아가는 반《정부》기운

최근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민심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고 획책하여온 박근혜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계속 치솟고있다.

남조선의 문학인들 750여명은 얼마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는 박근혜패당에게 맞서 싸울것을 결의하여나섰다.

그들은 박근혜와 그 패거리들이 어린 학생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가장 긴급한 순간에조차 그들의 생명보다 자본의 리윤을 먼저 고려했고 그들의 안전보다 《정권》유지에만 매달렸다고 하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민중을 진압하면서 진실을 가리우고 인민들의 분노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여온 집권세력을 단죄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박근혜가 단 한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수많은 의혹과 추문을 남겨둔채 사고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그것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그들은 민중의 분노를 표현하는 일이 작가들의 몫이라고 하면서 《세월》호참사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고있는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맞서겠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경남대학교 교수 70여명도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책임추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자기들의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많은 기일이 지났지만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못하고있고 자본과 권력에 추종하는 언론들에 의해 남조선사회는 바다속에 침몰하고있다고 하면서 침몰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외곡된 보도로 진실을 가리우는 언론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로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할것이다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5일 세종시에 있는 고용로동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피뢰당국에 임금문제해결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단체는 재벌들은 돈이 넘쳐나고있지만 로동자들의 삶은 바닥을 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로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지금 로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얼마되지 않는 월급만 받고있다고 하면서 물가가 날로 치솟고있는 현실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이런 임금으로는 도저히 인간답게 살수 없다고 밝혔다.

임금문제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로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임금을 올리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는 오늘의 집회를 시작으로 로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 앞서 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로총》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자들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현실에서 임금문제해결은 미룰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단죄하는 남조선로동자들

전교조탄압에 항의하여 단식롱성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핵심성원들이 9일 피뢰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단식롱성투쟁에 들어갔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전교조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갖은 박해를 가해오던 박근혜패당은 지난해 전교조의 내부규약을 걸고들면서 새로운 탄압소동을 일으켰다.

해고자들을 로조원으로 인정하고있는 내부규약을 고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로조자격을 박탈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역적패당은 지난해 10월 24일 끝끝내 전교조에 법외로조통보를 내렸으며 이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전교조는 법외로조통보의 철회를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오는 19일에 있게 될 1심재판을 앞두고 전교조 핵심성원들은 단체에 대한 피뢰패당의 탄압을 규탄하는 단식롱성투쟁에 돌입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단체를 법외로조로 만들려는것은 명백히 전교조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책동의 일환이라고 단죄하였다.

《정부》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부당한 법외로조통보를 당장 철회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독선적인 심복교체놀음 비난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9일 피뢰청와대 홍보수석을 교체한 박근혜의 속심을 폭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민중의 여론에 못이겨 청와대 홍보수석을 교체하면서 친《정부》적인물을 들여앉혔다고 비난하였다.

지금 청와대가 대규모의 개각설을 떠들고있지만 박근혜의 인사정책을 보아 기대할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어떤 인물을 권력의 자리에 앉혀놓아도 박근혜의 통치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형편이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관진과 한민구에 이은 이번 심복교체놀음은 박근혜의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을것임을 예고한다고 규탄하였다.

사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확인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언제까지 불통과 독선을 고집하려 하는가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개성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자는것을 남과 해외에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일어난 려객선침몰대참사와 관련하여 북, 남, 해외공동추모행사도 함께 진행하자는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노력의 표시이다.

여기에는 려객선침몰대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동포애의 정이 담겨져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를 비롯한 남과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였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패당만은 당치않게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것》이니, 《현 남북관계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느니 뭐니 하는 판에 박은 망발들을 내뱉으며 공동통일행사와 관련한 개성실무접촉에 6.15남측위원회가 참가하는것을 가로막았다.

결국 피뢰패당의 방해책동으로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해온 6.15민족공동의 통일행사와 공동추모행사는 끝내 실현될수 없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피뢰보수패당의 비렬한 책동을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반통일적, 반민족적폭거로 락인하면서 이를 온 겨레와 함께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초이고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통일대박》이니, 《드레즈덴구상》이니 하는따위의 반통일대결궤변을 내들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민간단체들의 접촉과 공동회합은 물론 통신련계마저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피뢰패당이다.

박근혜패당은 그것도 부족하여 제3국에서 동족과 만나 통일문제를 협의한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을 죄인으로 몰아대며 가혹한 박해와 제재를 가하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고 민간단체들의 통일운동과 협력사업을 완전봉쇄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어 체제대결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것이 바로 박근혜패당의 흉악한 심보이다.

박근혜패당은 이번 6.15통일회합을 가로막음으로써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북, 남, 해외공동추모행사까지 파탄시키는 반인륜적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피뢰패당이 북남공동선언들을 유린하고 각계층의 통일활동을 억누르며 동족대결에 매달릴수록 온 겨레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며 파멸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피뢰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을 분쇄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6월 10일
평 양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5월 31일 경제,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채택하였다.

한편 2일 캄보쟈와 이란이 쌍무적경제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아랍추장국련방과 알제리는 교통운수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란과 싱가포르가 7일 반테로, 경제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6일 피지와 예멘은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경제동맹창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새로운 경제동맹이 창설되였다. 그 명칭은 유라시아경제동맹이다. 지난 5월 29일 로씨야와 까자흐스딴, 벨라루씨대통령들이 동맹창설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 조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쏘련붕괴이후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통합사변이라고 하면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반면에 서방의 눈길은 차겁다. 그들은 로씨야주도의 경제동맹창설이 쏘련을 재생시키려는 《제국행사》라고 비난하고있다.

하다면 유라시아경제동맹창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두 세력의 동향속에서 국제사회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공정한 여론이 평하는바와 같이 유라시아경제동맹창설은 단합된 힘으로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지역나라들의 지향의 산물이다.

돌이켜보면 쏘련의 붕괴후 출현한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들사이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어제날 한식솔이였던 나라들간에 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제적련계가 끊어져 많은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더우기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는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로 하여금 지역에서의 다방면적인 경제적협력과 협조의 중요성을 똑똑히 깨닫게 하였다. 우여곡절속에서 자기의 출로를 찾은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들은 단합된 힘으로 도전들을 물리치며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지도자들이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조약에 조인한것만 보아도 경제일체화를 지향하는 그들의 의지와 립장을 엿볼수 있다.

독립국가협동체의 일체화를 추동하는데서 로씨야, 벨라루씨, 까자흐스딴을 포함한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이 차지하는 지위는 자못 크다. 그도그럴것이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형성으로 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련계가 밀접해지고 무역장벽들이 제거되여 국제적인 상품경쟁력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경제통합의 우월성이 현실로 증명되였다. 이번에 창설된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조약도 다름아닌 3개국이 운영해온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의 조약에 의거하고있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성원국들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준에서의 통합에로 이끌어갈것이며 국가들의 자주권을 완전히 수호하면서도 보다 긴밀하고 통일적인 경제적협력을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벨라루씨와 까자흐스딴대통령들도 동맹창설이 자국인민들에게 축복으로 된다고 하면서 매우 영향력있고 매력적인 경제개발지가 형성되였다고 확언하였다.

사실상 창설된 대규모경제적통합체의 잠재력은 크다. 1억 7천여만명에 달하는 인구수도 그렇지만 경제적가치가 큰 지하자원 또한 풍부하다. 세계가스매장량의 5분의 1, 세계원유매장량의 15%가 이 지역에 있다. 특히 지난 시기 하나의 경제체계에 망라되여있었던것으로 하여 공통점이 많고 풍부한 경험도 있다. 3개국이 차지하고있는 지리적위치는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거대한 수송로의 창설과 경제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담보해주고있다. 이 모든것이 참가국들에 보다 큰 경제적리득을 가져다주게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실적으로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자기의 창설을 선포하기 바쁘게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속에서 높은 견인력을 나타내고있다. 아르메니야는 오는 15일전으로 유라시아경제동맹조약에 조인하여 다음해부터 동맹의 정성원국으로 될것을 제의하였다. 끼르기즈스딴을 비롯한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이 유라시아경제동맹과 관세동맹가입을 표명해나섰다.

유라시아경제동맹창설은 단순한 의미에서 경제적통합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극 다시말하여 지배와 간섭을 추구하는 서방에 맞서는 지역동맹의 출현을 알리는 서곡이다.

이 지역에서 로씨야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독립국가협동체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고 저들의 세력권을 확장하려는것은 서방이 일관하게 추구하고있는 목적이다. 미국이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을 주되는 대상으로 하여 《색갈혁명》을 조작한것도 친미정권수립으로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바싹 좁히고 저들의 지배권을 손쉽게 확장하려는데 있었다. 나토의 군사시설들이 로씨야국경부근에 전개되고 유럽동맹이 자기의 령역을 동쪽으로 급속히 확대하고있는것도 이와 관련된다.

자기의 전략적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데 대해 로씨야가 가만히 나앉아 보고만 있을리 만무하다. 로씨야는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로 하나의 지역적인 통합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서방의 침투와 간섭을 막고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창설은 그 한 고리이다. 만일 로씨야가 벨라루씨, 까자흐스딴과의 유라시아경제동맹을 창설하는 경우 그것이 유럽동맹과 맞먹는 공동체로 될수 있다는것, 이것은 지역에서 저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에 파렬구가 생기는 비극적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서방은 보고있다. 실지로 유라시아경제동맹창설국들은 앞으로 동맹이 경제만이 아닌 정치와 군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동맹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서방은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어떻게 하나 유라시아경제동맹창설을 가로막기 위해 각 방면에 걸쳐 책동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구상이 발표될 당시 성원국으로 지정되여있던 우크라이나가 끝끝내 동맹에 가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복잡한 정국에 휘말려있는 리면에는 서방의 검은 마수가 깊숙이 뻗쳐있다. 외신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반정부시위가 표면상으로는 국내정치세력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으로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서방과 로씨야사이의 힘겨루기의 산물이라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벨라루씨정부에 대해서는 인권이 어떻소, 민주주의가 어떻소 하며 가혹한 경제제재몽둥이를 내들었으며 까자흐스딴에 대해서는 그 무슨 《전략적동반자관계》타령을 늘어놓으며 회유절반, 위협절반을 해댔다. 지금에 와서는 별의별 구실을 내대고 로씨야에 대한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일은 서방의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 발기국인 로씨야의 주도적역할과 지역나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자기의 존재를 세계앞에 드러내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유라시아경제동맹창설은 외세의 분렬리간책동을 짓부시고 단합된 힘으로 지역의 안정과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위력한 실체의 탄생을 선포한 중대한 사변이다. 바로 여기에 동맹창설이 가지는 보다 큰 의의가 있다.

승리는 언제나 자기를 자각하고 일떠선 인민의 편에 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의 피와 땀으로 살찌고 향유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는것, 지역자체의 힘으로 발전을 추동하는것, 여기에 자주적인 삶의 길, 번영의 길이 있다. 온갖 도전과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창설된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세계앞에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41090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